AUTHOR 송인규

TITLE 회개와 부흥: 개혁파 신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IN 신학정론
vol.25 no.2 (November,2007): 258-286

[신학정론 2007.11. 제25권2호 pp. 258-286]

정암신학강좌

회개와 부흥: 개혁파 신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송 인 규 | 조직신학 · 교수]

I. "회개"란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נָחַם의 니팔(niphal)형인 נִחַם (욥 42:6 등)이나 שׁוּב(겔 18:30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신약에서는 "회개하다"와 관련하여 세 가지 동사 - ἐπιστρέφω, μεταμέλομαι, μετανοέω - 가 사용되었는데, 개역한글판을 보면 ἐπιστρέφω는 "돌이키다"(마 13:15 등)로, μεταμέλομαι는 "뉘우치다"(마 27:3 등)로 번역되어 있고, μετανοέω만이 "회개하다"(계 3:19 등)로 되어 있다.

개혁파 신학은 다른 신학 전통과 같이 회개를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인 회심(conversion)의 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회심은 어떤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from)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to) 근본적 방향 전환으로서, 여기에는 회개(repentance)와 믿음(faith)의 두 요소가 포함된다. 또 개혁파 신학은 회개에 두 종류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 역시 다른 신학 전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나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최초적 회개(initial repentance)요, 다른 하나는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죄의 길에 빠졌다가 돌아올 때마다 겪는 반복적 회개(repeated repentance)이다. 또 개혁파 신학은 역시 다른 신학 전통과 마찬가지로 회개에 세 가지 요소인 지성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은 회개의 교리와 관련하여 다른 신학적 전통과 다른 독특한 면모도 가지고 있다. 첫째, 개혁파는 회개가 구원의 서정에서 차지하는 순서에 있어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르미니우스 계통의 신학에서는 보통 구원의 서정을 (1) 보편적, 외적 부르심 —〉 (2) 회개와 믿음 —〉 (3) 칭의 —〉 (4) 성화 —〉 (5) 견인이라는 다섯 단계로 상정한다.[1]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신학 체계로 보아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1) 보편적, 외적 부르심이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선행 은총(prevenient grace)[2]의 교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리상으로는 그들도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속 사역과 성령의 보편 역사 때문에 그러한 전적 부패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실제로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인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에 반해 개혁파 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일관성 있게 강조하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엡 2:1) 우리의 심령에 심기기 전에는, 그 어떤 구원의 역사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외적 부르심조차도 우리의 심령에 아무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죽은 심령에 일으키실 때에야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 곧 **잉태**(begetting)라고 한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영향력을 발휘하

1) 브루스 데머리스트, 『십자가와 구원』, 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pp. 55-6.
2) 아르미니우스적 신학 체계에 있어서 "선행 은총"이 차지하는 역할 및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송인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예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 「신학정론」, 제24권 1호(2006년 6월): 132-9를 보라.

고 이로써 새 생명이 의식적 영역에서 발현되는 것[이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중생**, 곧 **출산**(giving brith/new birth)이라고 한다]이다.[3] 그렇다면 개혁파가 상정하는 구원의 서정은 (1) 외적 부르심 —〉 (2) 좁은 의미의 중생[잉태] —〉 (3) 내적/유효적 부르심 —〉 (4) 넓은 의미의 중생[출산] —〉 (5) 회심(회개와 믿음) —〉 (6) 칭의 —〉 (7) 성화 —〉 (8) 성도의 견인으로 나타난다.

둘째, 개혁파는 회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런 면에서 여타의 신학 전통과 차이가 있다. 보통 회개는 중생과 달리 인간 편에서의 능동적 반응이 기대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히 고려한다면 회개의 본질에서도 그 이해가 달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회개(회심)의 성격을 잘 설명한 학자가 있다면 그는 벌코프이다. 그의 설명을 보라.

> 이 회심에는 두 측면 —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 — 이 존재한다. 전자는 인간의 의식적인 삶의 행로(conscious course of man's life)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행위요, 후자는 전자의 결과로서 인간이 자기 삶의 행로를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회심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a) 능동적 회심(active conversion)은 **중생한 죄인이 자신의 의식적 삶에 있어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 가운데 돌아서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이고, (b) 수동적 회심(passive conversion)은 **그[능동적 회심] 결과 중생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서는 의식적 행위**이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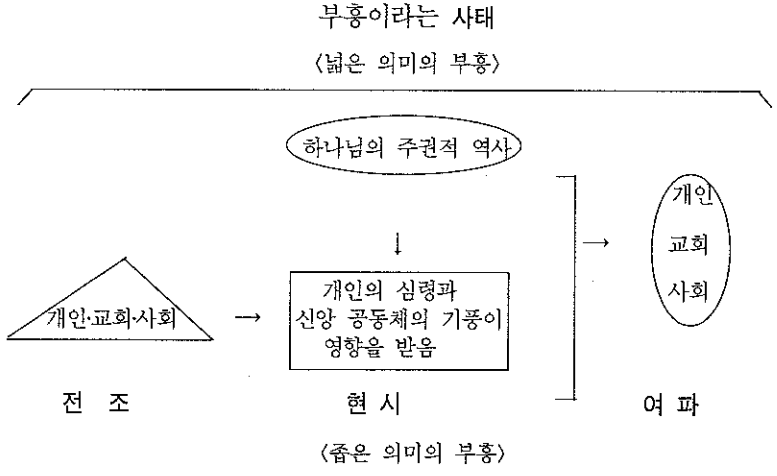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는 회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미명 하에 반대 극단으로 치닫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는 회개에 있어서 '거짓된 수동성'(false passivity)으로부터

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58), p. 469.
4) Ibid., p. 483.

탈피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회개를 이루시는 주권적 조성자이시지만 인간은 짐승이나 자동 기계 장치(automaton)와 같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므로, 회개에서 우리 편의 협력이나 노력을 배제해도 안 된다는 말이다.

II.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도 다변적(多邊的)으로 사용되고, 그 말이 워낙 다양한 활동이나 현상을 한꺼번에 지칭하기도 하는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이기 때문에, 정의는 고사하고 서술이나 묘사조차 쉽지가 않다. 따라서 필자는 부흥에 있어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을 대별하고자 한다. 전자는 부흥이라는 **사태** — 이에는 부흥의 **전조**(前兆, presage), 부흥의 **현시**(manifestation), 부흥의 **여파**(餘派, aftermath)라는 세 과정이나 항목이 모두 포함되는데 — 전체를, 후자는 세 가지 가운데 **부흥의 현시**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겠다. 우선 다음의 도표를 참조하라.



(i) 부흥의 전조

부흥의 전조란 부흥의 본 단계, 곧 부흥의 현시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개인적·공동체적, 신앙적·일반적 징후나 여건을 의미한다. 부흥이 본격적으로 현시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종종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는 수가 있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들이 선지서를 강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를 지적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바라고 외쳤는데, 이런 교훈들이 차곡차곡 심령에 쌓이면서 부흥의 현시를 위한 예비 단계를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거의 부흥 사건을 소개하면서 — 또 그 시대 교회의 참담한 실정을 개탄하면서 — 오늘날에도 그러한 부흥을 기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러한 권면 또한 부흥의 현시를 준비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조차 부흥의 전조를 구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은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국은, 외국 문화의 위협, 전통 종교의 생명력 상실, 동학란과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민비 시해 사건, 콜레라의 발생 등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바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 각성의 기회로 작용한 것이었다.[5]

그러나 부흥의 전조는 부흥의 현시가 마련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단지 각양의 부흥 역사에 있어서 부흥의 현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상기한 전조들이 여기저기에서 한 가지씩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뿐이다.

5) 박용규, 『평양 대부흥 운동』, 개정판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pp. 27-33.

(ii) 부흥의 현시

부흥의 현시는 좁은 의미에서의 부흥으로서 부흥의 핵심 단계이다. 만일 이 단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부흥이라는 사태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부흥의 현시는 두 가지 사항이 함께 만나 이루어진다. 하나는 신적 요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또 하나는 인적 요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개인과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 일에 관한 것이다. 패커는 그런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부흥의 시기는 늘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깊은 의식을 촉발한다. 영적 사안들이 압도적이리만큼 사실적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압도적인 권능을 발휘하여 질타와 동시에 치유를 한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고, 깊은 수준의 회개가 이루어진다. 믿음이 경층 치솟아 강한 확신이 되고, 영적 이해력은 자라나 예리하고 기민하게 된다. 그리고 회심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성숙한다.[6]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한 영적 영향력은 주로 집회의 맥락에서 경험되는 바이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부흥이 발발하게 된 맥락은 주로 어떤 집회를 통해서임을 알 수 있다.

> 1772년에 접어들자 부흥은 더욱 거대해졌고 50~60마일(80~90km)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까지 확장되었다. 이 부흥은 이듬해인 1773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했고 많은 죄인이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심했다. 1774년 봄에는 이전의 그 어떤 해보다도 더욱 비범하게 우리에게 임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이 배어 있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강타했다. 청중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어떤 이들은 절규하며 울부짖기도 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해 있는 카운티에서도 역시 경건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나는 이 회심한 회중을 여러 모임으로 조직했고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

6) J. I. Pack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84), pp. 256-7.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일과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마음껏 경험했다.[7]

또 집회에서 부흥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설교였다.

오후 4시에 나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라도 닫을 수 없다"는 본문을 또 설교했다. 내 설교를 절반 이상 진행했을 무렵 천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그런 능력이 강림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고, 교회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진동하는 것 같았다. 예배당은 수백 명의 백인과 흑인들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돌리든지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모든 회중의 얼굴을 적시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고, 신음 소리와 함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부르짖음만 들을 수 있었다. 내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음 소리와 회중의 기도 소리에 묻혀 버렸다. 나는 이윽고 강단에 앉았고 새드포드 씨와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했으며, 우리는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집은 정말 천국의 문이었던 것이다![8]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각종 집회 가운데 특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회심을 경험했고, 믿는 이들은 과거의 영적 나태를 벗어나 자신을 하나님께 재헌신하게 되었다.

(iii) 부흥의 여파

부흥이라는 사태의 마지막 단계는 **부흥의 여파**이다. 이것은 부흥의 현시 —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및 그것이 개인의 심령과 공동체의 기풍(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 로 말미암은 개인적·교회적·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 및 회복을

7) 이안 머리 지음, 『부흥과 부흥주의』, 신호섭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p. 119.
8) 전게서, p. 131.

의미한다. 부흥의 여파는 세 가지로 기술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부흥은 **수적 증가**(numerical growth)를 초래한다. 회심자의 수가 지역과 사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증가하고, 따라서 개교회의 교인 수 및 교회 수가 늘어난다. 미국의 경우 25년 간(1800~1825년) 지속되었던 제2차 대각성 운동은 각 교단의 교세 증가에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다.[9] 이것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던 각 선교회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10]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여파는 목회 지망생의 증가도 초래했다. 예를 들어, 1802년에 일어난 예일 대학의 부흥 역시 이 점을 설명해 준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목회 사역에 투신하는 놀라운 일이 급작스럽게 벌어졌으며, 그 숫자는 점점 많아졌다. 그 시기 이전에는 목회에 투신하던 젊은 후보생들은 그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었으니, 이는 교회 내에 세상의 영향력이 득세할 때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11]

둘째, 부흥은 공동체에 **내적 갱신**(inner renewal)을 가져다준다. 부흥의 여파는 외적 성장으로만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의 성숙과 갱신으로도 나타난다. 부흥의 과정을 지나며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신앙과 교회 생활은 그 전반에 걸쳐 활기, 생명력, 열의와 진지함으로 넘친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 참석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와 기쁨 표현의 기회가 되고, 찬양과 기도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성도끼리의 교제가 훨씬 더 친밀하고 끈끈하게 형성되며,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든다.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훨씬 증대된다.

셋째,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에 대해 더 큰 **외적 영향력**(outward influence)을 행사한다. 영국의 경우, "많은 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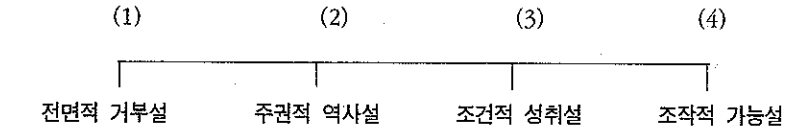
9) 전게서, pp. 200-2.
10) 박용규, 『평양 대부흥 운동』, pp. 452-9.
11) 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pp. 214-5. 인용문의 후반부는 부정확한 내용 때문에 사역(私譯)에 의존했다.

영향을 받았고 나라 전체를 복음주의적인 경건으로 바꿔 놓고자 힘썼다.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복음주의적 부흥'(evangelical revival)은 형무소 개혁,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 확대, 노예 제도의 철폐 등 사회·정치적 활동 가운데 표현되었다."[12]

필자는 지금까지 부흥이라는 사태[넓은 의미의 부흥]를 세 가지 사항 (혹은 단계) — **부흥의 전조**, **부흥의 현시**[좁은 의미의 부흥], **부흥의 여파** — 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III.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부흥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을 어떻게 연관시켜야 하는가? 필자는 여기에 네 가지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전면적 거부설**(anti-revivalism, AR)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흥과 관련한 인적 노력에 대해 부정적 자세를 취한다. (2) **주권적 역사설**(sovereignty revivalism, SR)은 부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역사라고 주장한다. (3) **조건적 성취설**(conditional revivalism, CR)은 인간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이다. (4) **조작적 가능설**(manipulative revivalism, MR)은 부흥은 순전히 인간의 조작에 의해 얼마든지 일어날 수

12) Stewart J. Brown, "Revivals (British Isles)," *Encyclopedia of the Reformed Faith*, ed. Donald K. McKim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p. 326.

있다는 생각이다. 이제 각각의 입장을 하나씩 살펴봄과 동시에 그 소개되는 입장에 대해서 비평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전면적 거부설(AR)

이 입장은 교회에 이미 임한 성령의 임재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부흥이나 그와 연관된 노력의 필요성을 일축해 버리는 것이다.

> … [이] 견해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이 현재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그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교회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양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아 침체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날들로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결코 필요한 모든 은혜와 도움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3]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견해는 교회 역사의 어두운 시기와 우리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너무 간과하는 하나의 이상론에서 나온 것 같다. 성령께서 교회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다는 진리와 우리가 그 복된 임재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런 영향력 아래 산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고 또 이에 연관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조건적 성취설(CR)[14]

13) 이안 머리 지음, 『성경적 부흥관 바로 세우기』, 서창원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1), pp. 46-7. 인용문 가운데 마지막 문장은 의미의 정확성 때문에 번역을 고쳤다.

14) 이 논고의 앞 부분에 있는 도표에 의하면 이제 (2) 주권적 역사설이 등장해야 할 것이다.

조건적 성취설은 이 입장의 명칭에 나타나 있듯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온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스코틀랜드의 전도자요 목회자였던 던컨 캠벨(Duncan Campbell, 1898-1972)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는 구약의 본문에 의거하여, 자신이 히브라이드 열도(Hebrides, 스코틀랜드 북서쪽에 있는 열도: 필자 주)의 버네라(Bernera) 섬에서 경험한 부흥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그 섬에는 상기 성경 본문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킨** 최소 한 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가 **그 조건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충실해야만 했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참으로 그러한 존재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하루 종일 헛간에서 기도하는 그 시골 우체부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했다[강조는 필자의 것].[15]

그는 버네라 섬에서의 부흥이 어떤 그리스도인 우체부의 기도에 의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 그리스도인이 대하 7:14에서 말하는 기도의 조건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부흥을 가져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적 성취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누적적 이유에 의해서 조건적 성취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성경 어디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인간 편에서의 조건 충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대하 7:14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않은가? 필자의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역대하 7:14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그 내용을 13절부터 살펴보자.

그러나 교육적 효과를 위해 먼저 (3)과 (4)를 다루고자 한다.

15) Duncan Campbell, *The Nature of a God-Sent Revival* (Decatur, TX: Rare Christian Books, n. d.), p. 14의 내용으로서, 이안 머리, 전게서, p. 10에 인용되었다. 역시 번역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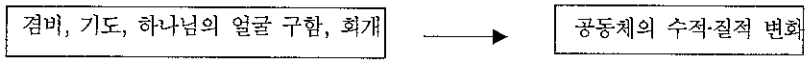
> **대하 7:13-14** [13]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상기 구절에서 핵심 되는 내용은 "땅을 고친다"라는 어구이다. 이것은 가뭄, 메뚜기 재앙, 질병 등 자연 재해(대하 6:28)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는 것인데, 원래 신명기 28~30장에 나타난 바 언약의 복과 저주에 관한 원리가 실현되는 구체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7:14에서 약속된 바 "땅을 고침"은 원래 신정 통치의 맥락에서 주어진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어느 한 민족의 경제적·산업적·정치적 융성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부흥을 가리키는 것과 연관시키기는 더더욱 힘들다고 하겠다.

둘째, "조건"이라는 용어는 부흥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합당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설사 한 걸음 양보하여 역대하 7:14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바의 부흥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부흥의 역사에 "조건"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자리가 없음을 강조해야겠다.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조건절 형태의 문장 구조("If …, then …")를 많이 발견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를 거론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조건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논리 형식상으로 본다면 전제절(protasis)["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의 조건 내용이 충족될 경우, 귀결절(apodosis)["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에 명시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과 관계에 종속되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주권 가운데 그의 신실함을 좇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케 하시는 것이다. 비록 이 과정에 모종의 필연성(necessity)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모순되이 행동하실 수 없다는 것 — 이 개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흔히 생각하는 기계적·비인격적 성격의 필연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던컨 캠벨 같은 조건적 성취설의 주창자는 부흥을 너무나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과 관계의 차원으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셋째, 부흥의 예비 단계와 부흥의 성취 사이에는 아무런 본질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의 비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논의의 진행을 위해 한 걸음 더 양보하고자 한다. 즉 부흥의 역사와 관련하여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치고 논의를 계속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흥의 예비 단계와 성취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금 조건적 성취설의 주창자는 부흥의 현상과 관련하여 (S)가 (F)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비 조치 (S) 성취 (F)

그런데 (S)가 (F)의 조건이 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S)가 (F)의 **필요 조건**(necessary condition)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S)가 (F)의 **충분 조건**(sufficient condition)이 되는 것이다. 먼저 (S)가 (F)의 필요 조건인가부터 살펴보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꼭 그 이전에 겸비, 기도, 회개 등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 대략 16년 전[1740년을 의미] 북부 식민 지역에서의 모든 종교적인 관심사는 고대의 유물이 되어 버렸다. 거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잠이 든 상태였으며, 기껏해야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회는 재앙과 전염병에서부터 자유롭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요컨대 회개로의 비상한 초청과 전도가 없었던 이런 때, **갑자기 영원한 것들에 대한 심원하고 일반적인 관심이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죄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타락한 악습들을 끊어 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갑자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 [강조는 필자의 것][16]

이와 같이 부흥의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회개, 거룩함 등의 요소가 결여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S)는 (F)의 필요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 (S)는 (F)의 충분 조건인가?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아니오!"이다. 다시 말해서, 겸비, 회개,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현시되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엘버 투이스(H. Elver Lewis)는 1904-5년에 웨일즈 부흥을 목격한 인물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수없이 많이 그리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1906년에도 부흥을 일으켜 보고자 노력해 보았지만,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찾아왔던 1905년 초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정성스러운 수고를 종종 목격했다. 그러나 재앙 외에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 우리는 참으로 기이하다는 것 외엔 어떤 설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뿐이다.[17]

이처럼 예비 사항이 다 갖추어져도 부흥의 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 있는 것을 볼 때, (S)는 (F)의 충분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S)는 (F)의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라는 결론에

16) 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p. 34.
17) H. Elver Lewis, *With Christ Among the Miner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6), pp. 7, 10의 내용으로서, 이안 머리, 『성경적 부흥관 바로 세우기』, p. 44에 인용되었다.

이르른다. 다시 말해서, 겸비, 기도, 하나님의 얼굴 구함 등의 단계들은 부흥이 일어나는 데 있어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조건"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겸비, 기도, 하나님의 얼굴 구함, 회개 등의 예비 단계가 부흥의 조건이 된다는 조건적 성취설의 주장 또한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4) 조작적 가능설 (MR)

조작적 가능설은 앞에 소개한 조건적 성취설(CR)의 내용을 그 바탕으로 깔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론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부흥의 역사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방편이나 상황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또 조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조작적 가능설의 대표적 인물은 주지하다시피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이다.

피니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는 것이 부흥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소위 "새로운 방책들"(new measures)을 활용했다. 그런 방책들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그는 개개인들에 대해 직접적이고 공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 때로 이름을 부른다든지 함으로써 – 회심에 대한 즉각적 결단을 하도록 강요했다. 다른 쇄신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만드는 일, 남녀가 섞인 그룹에서 여성들이 기도하게 하는 일, 평신도의 참여를 격려하는 일, 고뇌석(anxious bench)[18]에 앉히는 일 등이 포함되었다. 이런 수단들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선택에 의해 신앙적 결단(religious commitment)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19]

18) 어떤 경우 애통석(mourner's bench)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불신자 가운데 자신의 심령 상태에 대해 고뇌하는 이들이 기도하고 또 변화를 촉구 받는 그런 장소로서, 보통 집회 장소의 맨 앞 몇 줄이 이런 목적으로 할당되었다 [William G. Travis, "ourner's Bench," *Dictionary of Christianity in America*, eds. Daniel G. Reid et al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0), p. 791].

피니가 부흥 집회에 이처럼 인위적이고 실용주의적 방법론에 집착하게 된 것은 주로 그의 신학적 확신 때문이었다. 적어도 세 가지 서로 맞물린 요소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명목상으로만 인정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장로교 목사였던 게일(George W. Gale)에게서 신학 지도를 받고 1824년 성(聖) 로렌스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장로교의 근본 교리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듯하다.[20] 그는 부흥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본래의 실상과 다르게 생각해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사건들 – 특히 그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일과 관련해 – 을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부흥을 조장하기 위한 이성적 수단의 채택을 배제하는 일로 생각했다 …[21]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능력과 방편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신념의 발동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인간의 능력 행사로 축소되었다.

둘째, 그는 인간의 자유와 관련하여 충만한 능력(plenary ability)을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자유로운 행위자라는 자연적 구성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양도 불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자연적 능력"(natural ability)이라 불렀다.[22] "그가 그 능력을 자연적이라고

19) M. Robert Fraser, "New Measures," *Dictionary of Christianity in America*, p. 817.

20) "피니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때에 그가 전파해야 하는 프린스턴의 전통 교리들을 교묘하게 경멸해 왔던 것이다" [Benjamin B. Warfield, *Perfectionism*, Vol.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1), p. 38로서, 이안 머리, 전게서, p. 394에 인용되었다].

21) *Lectures on Revivals* (Minneapolis, Minnesota: Bethany House, Publishers, 1988), p. 18.

22) Benjamin B. Warfield, *Studies in Perfectionism*, ed. Samuel G. Craig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8), p. 174.

부른 까닭은, 이것이 없이는 인간이 명령이나 보상이나 처벌의 온당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자연적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 고유의 것이기 때문이었다."[23]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은 자연히 그로 하여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부인하게 만들었다. 만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주장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연히 피니는 원죄의 개념을 배척했고,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와 후손의 죄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죄책의 전가나 부패한 본성 — 실상 피니는 인간에게는 본성(nature)이나 마음(heart)은 없고 오직 의지(will)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의 전달 등은 그의 신학에 끼어들 여유가 없었다. 이 점에서 그는 결국 펠라기우스의 오류를 좇은 것이었다.

셋째, 피니는 회심의 본질을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결단적 선택 행위에서 찾고 있다. 피니 당시의 신학적 풍토는 칼빈주의적인 것으로서 회심의 핵심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서 찾고 있었다.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로 간주되어 왔었다. 그러나 피니는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노력과 결단 위주의 과정으로 뒤바꿔 버렸다. 죄인들이 자신의 회심과 관련하여 무언가 행동하기까지는 성령께서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중생은 (진리에 관해) 논증을 할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진리는 외적 수단과 외적 동인으로서 먼저 설교자에 의해 제시되는 바이고 그리고 난 연후에야 성령께서 제시하는 바이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가 아니고서는 죄인을 회심시키신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가 진리를 죄인에게 직접 전달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죄인의 주체적 기능은 필수불가결한 법이니

23) Charles G. Finney, *Lectures on Systematic Theology*, p. 484의 내용으로, Benjamin B. Warfield, ibid에 인용되었다.

> 회심은 죄인 스스로의 주체적 기능을 옳게 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창조적 능력에 의한 자기 본성 혹은 본질 내의 변화 …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진리 때문에 회심을 하는 것이다. 회심은 진리에 굴복하는 것이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 한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실제로 선택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이다."[24]

이상에서 열거한 세 가지 신학적 내용을 고려할 때 왜 그가 회심자 대상의 부흥 집회에서 "새로운 방향들"에 그다지도 연연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니의 조작적 가능설은 주창자들의 약속과 달리 그들이 꿈꾸는 대로의 부흥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피니 자신부터 그러한 방편의 조작들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했다.

> 많은 사람이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럴싸한 위조된 부흥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 가운데 참된 회심자는 없습니다 … **신앙 부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은 다분히 기계적으로 변질되었고 여러 방책과 기법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수단과 방법들에 너무 많이 의존했습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수단과 방법들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부흥의 성격과 특성이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부흥의 참된 영은 부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 형식적이며 기계적인 방법 앞에서 비판에 잠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강조는 필자의 것].[25]

(2) 주권적 역사설 (SR)[26]

24) 이 진술은 *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 (New York and London, 1910), pp. 195, 359, 377, 383, 423의 내용으로서 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p. 377에 인용되었다. 역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번역 내용을 수정했다.

25) *Reflections of Revivals*, p. 102의 내용으로서, 『부흥과 부흥주의』, pp. 447-8에 인용되었다.

26) 원래 주권적 역사설은 순서상 두 번째로 취급해야 하지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 목적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다루게 되었다.

주권적 역사설은 개혁파의 통상적 입장이다. 주권적 역사설에서는 부흥과 관련하여 최고의 원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인간을 매개로 사용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각종 수단과 방편을 배제하지 않으시지만, 그것들은 독자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은혜 의존적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 사항이 연관되어 있다.

첫째, 부흥은 그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에드워즈는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로서, (i)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현시하기 때문이고, (ii)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으로 높임을 받기 때문이며, (iii) 또 무엇보다도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7]

둘째, 부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각 단계와 모든 양상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강조했듯이 —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수단에 있어서 주권적이시다. 또 부흥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주권적이시다. 그리고 부흥의 도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권적이시다.

셋째,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하여서 부흥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를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도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빌 2:13)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침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 또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편에서 둘 사이의 신비스러운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의 할 바를 게을리 하지는 말아야 한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시기에도 역사하시지만 교회의 평범한 시기에도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동경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27) 조나단 에드워즈, 『균형잡힌 부흥론』, 양낙흥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pp. 139-40.

때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가 무언가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아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 부흥을 열망하고 동경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교회 생활 역시 귀하게 여기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네 가지 입장을 설명했다. 이제 이 네 가지 입장의 특징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흥에 대한 입장 / 사안에 대한 항목	전면적 거부설 (AR)	주권적 역사설 (SR)	조건적 성취설 (CR)	조작적 가능설 (MR)
(i) 부흥의 원동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노력에 비중을 둔다.)	인간의 노력
(ii) 인간의 노력에 대한 평가	무가치	도구적 가치 인정 (인간의 노력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별도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가치 인정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적 가치 인정
(iii) 활용되는 수단	없음 (부흥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므로 부흥을 위해 어떤 특별한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교, 기도, 회개	겸비, 기도, 영적 갈증, 자백과 회개의 네 가지 항목	믿음의 결단 [비회심자] + 회심의 촉진을 위한 "새로운 방책들" (new measures) [설교자]
(iv) 부흥에 대한 예측 가능 여부	불가능	불가능 (예기조차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잘못 될 가능성을 인정한다.)	가능	가능
(v) 비(非)부흥기의 교회 상태에 대한 평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비록 부흥기에 성령의 비상한 부으심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교회는 성령님의 지속적 역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간주
(vi) 부흥에 대한 염원/간구	불필요	필요성 인정	필요성 인정	필요성 인정

IV.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지속적 회개의 필요성

회개는 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경은 우리가 반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사죄를 받는 것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후에도 계속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점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마 6:12)과 요한의 편지(요일 1:8-10) 속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려면 우리 또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과 생생하고 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요 15:4-5; 고전 1:9)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열망이요 꿈이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을 용납할 수 없는 고로 죄의 정결함은 필수적인 선결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오직 지속적 회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특히 내주성 죄악(indwelling sin)의 문제 때문에 회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내주성 죄악"이란 우리의 인격 중심부에 뿌리를 박은 죄악으로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하고 내면적인 죄악을 일컬음이다. 내주성 죄악의 구체적 예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 수 있다.

** 성적 습관: 음심, 공상, 음란물 탐닉 등.
** 성격과 기질: 신경질, 화, 고집, 퉁명스러움 등.
** 타인에 대한 태도: 미움, 시기, 교만, 경멸 등.
** 욕심: 그릇된 야망, 명예심, 탐심,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 등.
** 그릇된 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함, 편견/선입견, 고정 관념 등.[28]

그런데 이러한 내주성 죄악은 우리의 인격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돌발적" 역사에 의해 어느 한 순간에 근절될 수가 없다.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 많은 세월이 소요되고 많은 심리적·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듯이, 내주성 죄악 역시 그 형성에 있어 기나 긴 연륜과 복잡한 요인들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 단번이거나 단시간적 성격의 처방일 수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내주성 죄악만큼 지속적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리버풀의 첫 감독이었던 라일(John C. Ryle, 1816-1900)은 내주성 죄악과의 투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어느 한 순간이라도 나는 거룩이 내주성 죄악의 현존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다. 거룩한 사람의 최대 불행은 그가 자기 주위에 "사망의 몸"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종종 "악이 그와 함께 있는 것"(롬 7:21)이다. 이는 옛 사람이 그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말하자면 그가 밟는 모든 단계마다 그를 뒤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다른 이들과 달리 내주성 죄악과 친해지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탁월함인 것이다. 그는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 나는 또 거룩이 한꺼번에 원숙함과 완벽함에 이르는 것이라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부르려면 내가 전에 언급한 은혜들이 이미 꽃을 피우고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성화는 항시 점진적인 역사(役事)이다……그리고 성화는 가장 훌륭해도 불완전한 역사(役事)이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빛나는 성인들의 역사(歷史)도 종착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많은 "그러나"와 "그렇지만"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포함하는 것이다……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성소의 저울에 달아 보면 많은 흠과

28) 송인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개정판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0), p. 139의 내용인데 몇 가지 사항을 수정·보완했다.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삶은 죄, 세상, 마귀와의 지속적 싸움이요, 그나마 어떤 때는 그것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육신은 항상 영과 다투고 있고 영은 항상 육신과 다투고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다"(갈 5:17; 약 3:2).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렴풋이 묘사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기도하는 것임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비록 그들이 그 목표에 다다르지는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바짝 뒤쫓아간다. 그들이 그것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항시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 비록 그들의 현재 모습이 상기한 바와 같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고자 하여 애쓰고 분투한다.[29]

내주성 죄악과의 싸움은 어차피 한 두 번의 접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 싸움은 평생에 걸쳐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도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회개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2) 회개의 영역

회개의 영역은 결국 죄의 영역과 맞물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죄의 영역을 어떻게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편의상 죄의 영역을 (i) 개인적인 것, (ii) 지도자와 연관된 것, (iii) 신앙 공동체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i) 개인적인 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에 배치되는 행동, 태도, 의향

29) J. C. Ryle, *Holiness* (Old Tappan,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n. d.), pp. 38-9.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안 멜린즈(Ian Malins)는 시편의 내용에 기초하여 개인적 죄를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30]

> 시 24:3-4 [3]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4]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네 가지 항목이란 "깨끗한 손"[거룩한 행동(holy actions)], "청결한 마음"[거룩한 태도(holy attitudes)], 우상 숭배[31]를 삼감[거룩한 애착(holy affections)], 거짓을 삼감[거룩한 언사(言辭)(holy words)]을 말한다.

(ii) 지도자와 연관된 죄.

모든 지도력(leadership)에는 특권과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과 책임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복병처럼 깔려 있어 까딱 잘못하면 지도자의 삶이 금시 죄로 얼룩지게 되므로, 더욱 조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도자가 다음과 같은 항목의 내용들을 자기 점검의 소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릇된 세상 정신 — 육신의 정욕[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일 2:16) — 이 지도자들의 심령과 의식 속에 뿌리 내린 결과이다.

30) *Prepare the Way for Revival: Essential Keys That Bring God's Manifest Presence* (Grand Rapids, Michigan: Chosen, 2004), p. 89. 필자가 이 분류와 정리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죄의 목록(막 7:21-22; 롬 1:29-31; 갈 5:19-21 등)을 정리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31) 개역한글판에 "허탄한 데"라고 번역된 단어 שָׁוְא는 "우상"으로 의역될 수 있다.

** 탐욕의 문제
- 목회와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입발림(lip service)에 불과하고 실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간주함.
- 목회자들이 교회의 수적 크기, 높은 직책, 사례비 수준 등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종"과 선한 목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함.
- 교회의 수적 증가를 성실한 목회 사역의 자연스런 결과로 간주하지 않고 아예 지상(至上)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교회끼리의 과다 경쟁, 목회자끼리의 신의와 우애 상실, 왜곡된 교회 모습을 연출함.[32]

** 자랑의 문제
-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직이나 목회 업적을 내세워 교우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이들을 좌지우지함.
- 지도자들이 자신의 "남다른" 영적 은사나 경건 훈련이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함으로써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냄.
- 신학교 교수들이 자신의 학위와 전공 지식을 자기 스스로 획득한 특권으로 자부하고, 자신이 그런 점에서 일반 목회자들과 차별화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냄.

(iii) 신앙 공동체적인 죄/잘못

필자가 신앙 공동체적인 죄/잘못을 언급함에 있어 "신앙 공동체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 사이에 편만해 있는 전반적 경향을 지칭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항목이 도드라지게 부각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기복 신앙**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복 신앙이란, "복의 성경적 의미를 왜곡하여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성공, 출세, 번영 등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적 경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2) 어떤 종교 사회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목적 전치(目的轉置)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p. 240.]

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열렬히 기복 신앙에 빠져드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 가지 맞물린 요인이 있는 것 같다.

> 첫째,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실현(self-realization)의 욕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인의 전통 문화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무교적 배경**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무교적 세계관은 길흉화복에 대한 조치 —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일 — 를 삶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삼게 만들었다. 셋째, **성경의 복 사상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복에 대한 광적 집착 현상을 낳았다. 이것은 특히 구약에 빈번히 등장하는 "복"의 의미를 곡해하고 또 잘못 적용해 온 데서 문제의 핵심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중첩된 세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국 기복 신앙의 수호자와 전파자가 되고 말았다.[33]

기복 신앙의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도 중요시하시는 구원의 복(엡 1:3~14)을 값싸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게끔 만든다. 또, 구원과 복과 긴밀히 연관된 여타의 신앙적 면모들 —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 고난 중 즐거워 함,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삶 등 —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현저히 약화되고 급기야 자취를 감추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 은택에 마음을 빼앗겨 종종 탐심의 노예로 전락하곤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복 신앙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회개해야 한다.

둘째, **이원론적 자세**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다. 이것은 우리 삶의 영역을 종교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으로 나누고 전자만이 기독 신앙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선 **영육 이원론**이 있다. 이만열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33) 송인규, "복," 「복음과 상황」 (2007년 5월): 102.

> 한국 기독교에 보이는 이원론 사상은 먼저 그 인간관에서 뚜렷하다. 그 인간관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영(靈; 魂)과 육(肉; 體)의 두 요소로 나누고, 인간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도 이 두 요소는 각각 다른 영역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영은 종교적 기능을 감당하고 육은 영에 종속되어 영을 보존하는 구실을 한다. **영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고상한 사상과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이지만, 육은 썩어질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며 무가치하고 시간적이다**[강조는 필자의 것].[34]

또, 교회와 세상을 고착적으로 구분하는 **영역 이원론**도 있다. 어떤 지도자는 이것을 목회 사역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다시 말하자면 이원론적(二元論的, Dualism) 사상의 극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분 쯤으로 알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무관한듯이 생각하는 이원론**이 극복되어야 오는 오는 시대의 목회를 감당하리라고 본다. 칼빈주의자들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음미해 볼만하다. **하나님의 주권(主權)은 교회당 안이나 어느 국부적인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이** 바른 목회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
> 앞으로의 목회는 교회(ἐκκλησία)의 울타리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2중 구조로 보기보다는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교회를 이해해야 하리라고 본다** [강조는 필자의 것].[35]

한국 교회 내에 이원론적 신앙 자세가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관·사회관·노동관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및 기독교 문화의 창달에 있어서도 이렇다 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원론적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셋째, **저급한 윤리 의식**이 골치 아픈 문젯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34) 『한국 기독교와 민족 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1), p. 506.

35) 정성구, "한국 교회와 목회," 『2000년대를 향한 한국 교회의 전망과 과제』, 정일웅 편 (서울: 총신대학 부설 한국 교회 문제 연구소, 1991), pp. 110-1.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의식 가운데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삶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전혀 일깨워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빈번히 그에 상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 내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할 수 있겠다. (i) **구원론적인 이유**로서 우리는 보통 구원과 관련하여 칭의만을 강조하고 성화의 중요성을 빈번히 등한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극적 편중성은 구원 이후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성경의 교훈(엡 2:10)에 대해서조차 눈 멀게 만들었다. (ii) **교회론적인 이유** 때문에 성화의 삶을 강조하기가 힘들다. 한국 교회의 최근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구현해 내는 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재 교수는 이러한 악영향의 예로서 "신사참배," "교회 분열," "교회 성장주의와 기복 신앙," "은사 운동" 등을 거론하고 있다.[36]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의식이 저급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교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며,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신력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저급한 윤리 의식에 통탄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죄의 영역을 세 가지 — (i) 개인적인 것, (ii) 지도자와 연관된 것, (iii) 신앙 공동체적인 것 — 로 나누어 설명했고, 이것이 동시에 회개의 영역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명백백히 드러난 셈이다. 우리는 평소에 늘 회개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부흥을 열망하면서도 회개를 힘써야 한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도래시키는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다만 성경의 명령을 좇아 회개하는 것이고,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여

36) 김영재, "한국 교회의 구원과 성화," 『구원 이후에서 성화까지』, 오덕교·김정우 편 (서울: 이레서원, 2005), pp. 280-2.

회개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의 내주성 죄악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흥에 대한 우리의 염원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마음 깊숙이로부터 훨훨 타오른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온통 부흥에 대한 갈구로 뒤덮인다.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의 처지를 살피사 다시금 성령을 부어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주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목도케 하소서!"

[신학정론 2007. 11. 제25권2호 pp. 287-316]

정암신학강좌

한국교회 부흥에 끼친 박윤선의 신학과 신앙

[이 호 우 | 한국성서대학교]

I. 들어가는 말

개신교회가 들어온 지 120년, 그 동안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에 동력을 제공해 준 것은 짧은 역사 속에서 각각의 시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금의 한국교회는 1907년에 임했던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시기보다 더 뜨겁게 부흥 재현을 꿈꾸고 있다. "부흥"을 주제로 한 수많은 기념행사와 집회 그리고 다양한 서적과 음반들은 부흥 재현을 기대하는 한국교회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부흥을 갈망하고 체험했던 초기 한국교회의 거룩한 유산은 'Again 1907'이라는 듣기 좋은 광고 문안으로 포장되어 현 세대 성도들의 감성만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있지마는 않은지 자성(自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암(正巖) 박윤선(朴允善, 1905~1988) 박사는 1907년 부흥운동의 주역인 길선주와 같은 부흥사가 아니다. 또한 김익두와 같은 인물도 아니다. 해방